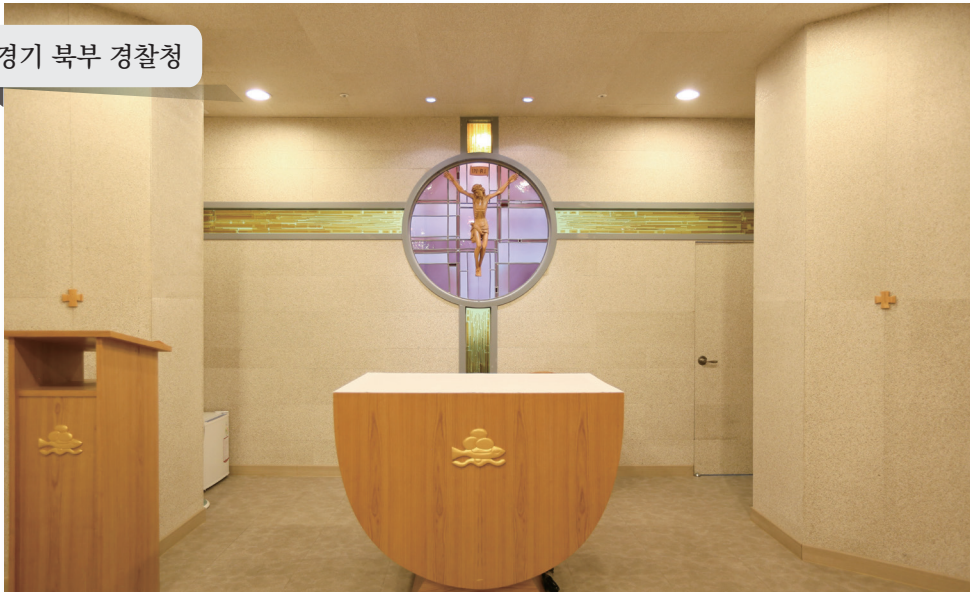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17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경기 북부 경찰청



설립 2013년 10월 전화 사무실 031-850-1477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9

제1독서 탈출 32,7-11.13-14

화답송 시편 51(50),3-4.12-13.17과 19(◎ 루카 15,18 참조)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뒤틀리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엮신
여기지 않으시나이다. ◎

제2독서 1티모 1,12-17

복음 환호송 2코린 5,19 참조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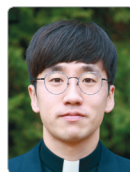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음 루카 15,1-32 또는 15,1-10

영성체송 시편 36(35),8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용서란



박건희 바오로 신부
화정동 부주임

오늘 복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수난 이야기를 제외하고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복음 중 가장 긴 복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꽤 간단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자신의 과오를 절실하게 느낀 그 아들이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오고 인자하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청하려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준비한 말과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말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지요. 어떤 부분이 달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주 큰 잘못을 누군가에게 하고 용서를 청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를 떠올려봅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하지? 연락은 문자로 해야할까 전화로 해야할까?’ 하면서 수없이 그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후에 용서를 청할 상대를 마주합니다. 둘째 아

들도 그랬겠지요. 수도 없이 말을 정리하고 상황을 가정하면서 아버지를 마주할 그 시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을 품팔이꾼 중 하나로 써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 아들이 이 말을 안한 것이 아니라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도 없이 연습했던 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용서를 해준 것은 아닐까 묵상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 자비롭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빨라야 합니다. 용서는 소위 말하는 뒤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청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용서를 청하는 누군가를 안아주는 것, 그 잘못의 경중이 어떻든 간에 결국 큰 용기를 내어야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과정, 잘못의 경중,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먹은 그 용기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

엄마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좌동 성당 / 김아름 소화데레사

그 해 직장을 갖고 처음 맞은 여름 휴가를 집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바람대로 집은 늘 이모들과 어린 조카들로 한시도 조용할 틈이 없었으니까요. 시끄러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4박 5일 피정에 들어가던 날도 당신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쓰지 않던 냉풍기를 자취하는 친구에게 주자는 저의 제안에 엄마는 매몰차게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집에 항상 마음을 쓰던 친구가 에어컨없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안쓰러운데 엄마는 이렇게 본인 생각만할까, 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대화란 것이 늘 그랬습니다.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속마음은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대화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씩 집을 비우는데 꼭 불편한 마음을 줘야 해’하는 서운함과 ‘한동안 못 볼텐데 괜히 엄마한테 심하게 말했나’하는 죄책감을 안고 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은 엄마와 다툼 일 때문에 마음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다툼 그 일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저의 잘못으로 생각이 모아지며 항상 그렇듯 미안함과 죄송함이 몰려왔습니다. 꼭 어린시절 수련회 마지막 밤 촛불을 들고 ‘엄마’하며 으레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런 습관처럼요. 이상하게도 조용히 쉬고 싶어 찾아든 피정 내내 저의 마음은 ‘엄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기도 속에서 문득 여섯 살 적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가리키는 엄마, 당신의 손가락도 함께요. 나를 욕심많은 아이로, 만족할 줄 모르는 아이로 단정짓던 그 손가락이 저는 미웠습니다. 저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안돼’라고 다그치던 당신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계속 들끓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서운함과 크고 작은 상처들이 앞다퉈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이런 마음은 안되는데’하며 ‘제가 엄마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느님께 거듭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도 당신에 대한 미움은 덩굴처럼 저를 감싸며 숨막히게 했습니다. 영적 동반을 해주시던 수녀님께 복잡한 마음을 털어놓으니 ‘데레사, 하느님께 솔직히 마음을 털어



놓으세요.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너무 밍다고 원망도 쏟아내세요. 억지로 용서하려하지 마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홀로 기도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질끈 눈을 감은 채 속으로만 했던 원망을 입 밖으로 소리내었습니다. '하느님 엄마가 너무 미워요. 저를 낳고도 산통이 심해 몇 해는 제가 보기도 싫었대요. 무슨 엄마가 그래요. 전 궁금한게 많고 해보고 싶은게 많았던 거 뿐이었는데... 저를 욕심많은 아이로 이기적인 아이로 단정지은 건 늘 엄마였어요!' 한참을 울부짖고나니 어지럽고 숨이 막혀 기도방을 나오려고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 한없이 처연한 표정으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안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하는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솔직해지니 마음도 틈이 생겼는지 엄마가 우리에게 고백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큰 잘못을 해서 그런게 아닌데, 너희 어릴 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지옥같아서 그 화를 너희한테 풀었던 거 같아.' 엄마 저는요, 당신에 대해 궁금해한 적이,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엄마의 하루는 어땠는지, 요새 엄마의 가장 관심사는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엄마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저의 발걸음만 봐도 방문 닫는 소리만 들어도 저의 마음을 아셨는데...

거짓말처럼 피정 마지막 날 새벽 공기는 시원했습니다. 전날까지만해도 폭염에 숨도 쉬기 힘들었는데 처서가 되자 청량함이 찾아들었지요. 저는 4박 5일의 피정을 마치고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냉풍기 사건은 쓰던 물건을 어떻게 친구에게 줄 수 있냐는 엄마의 마음을 제가 곡해해 들었던 것이었어요.

다시 여름이 찾아왔고 우리는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의 삶을 엄마만큼 아끼고 더 사랑하고 싶어졌어요. 아직 저에게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수녀님께서 피정 직후가 아닌 언젠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주어질 때 마음 깊이 감춰뒀던 이야기를 엄마와 나누라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두려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홀로 세 자매를 키우며 희생하신 엄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리려는 거 같았어요. 그리고 또 다시 다툼으로 이어질까봐. 엄마, 그래도 용기낼게요.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인걸요. 당신을 마주보고 이렇게 시작할게요.

“엄마, 당신을 오롯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

기타

1. 소규모 집단

유사종교들은 수십만에 이르는 집단도 있지만, 대부분 100-20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이다. 이러한 규모의 특징은 깊은 인격적 만남과 상호 이해에 바탕한 강한 상호 결집력으로 이어진다. 규모가 커진 집단들도 지역마다 작은 단위의 소집단을 만들어 초기의 운영 방식을 이어가게 한다. 그 안에서 신도들은 이 집단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일종의 ‘행복감’(집단 소속감을 통한 안정감)마저 얻는다. 그래서 일부는 이 집단이 사이버라는 것을 알지만, 이러한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 신앙의 이유가 아닌 인간적 관계에 얽혀, 인생을 망치는 그물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것이다.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관계를 끊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2. 비밀주의

이러한 집단들은 그 교리나 실천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소규모라는 이유도 있지만, 비의적인 교리나 실천, 현금과 재산의 활용, (비)윤리적인 부분 등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일종의 ‘비밀주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비밀주의는 의문을 품거나 탈퇴하는 이들이 등장할 때 문제가 된다. 집단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은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부드러운 방법부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까지 사용한다. 이른바 ‘악에 물든’ 이들을 감금하거나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탈퇴한 이들의 집까지 찾아가 협박하기도 한다.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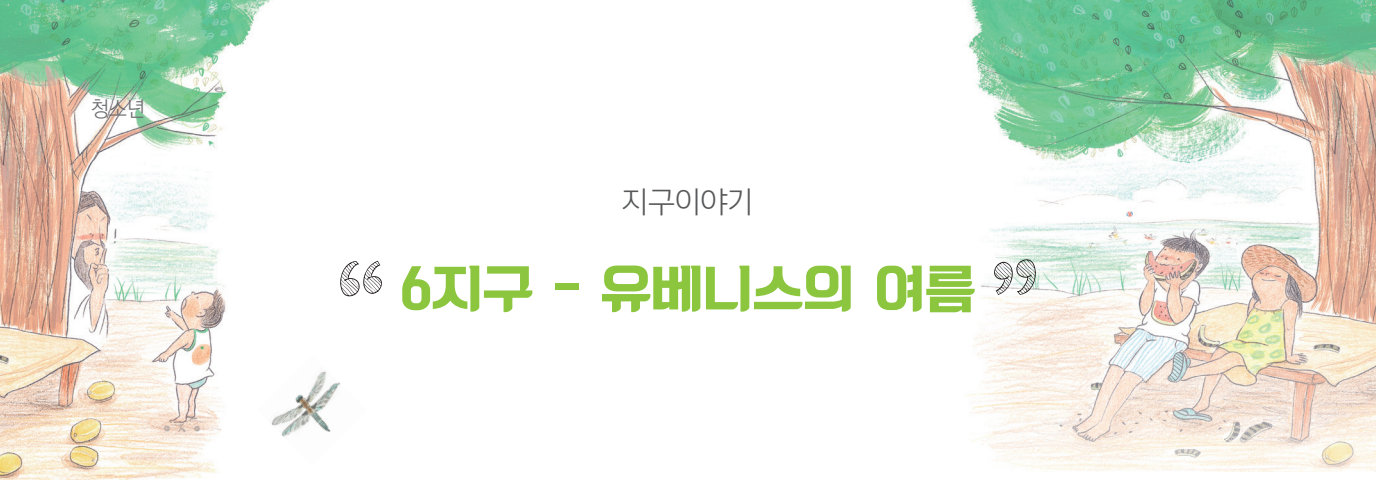
국의 ‘인민사원(Peoples Temple of the Disciples of Christ 1953-1978)’, 한국의 ‘오대양’(1987) 등은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간 대표적인 예이다.

3. 민족주의

유사종교들은 ‘선민의식’(뽑힌 사람들)을 강조한다. 한 반도가 세계 변화의 중심이 되고, 한민족이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뽑힌 이들이 그 중심이 될 것(임금이 되어 다스린다)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다른 나라의 유사종교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의 ‘전능신교’는 중국 한족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새로 선택된 민족이라고 주장한다.

선민사상의 바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한(韓)민족이 선택되었다는 주장과 동학에서 출발한 ‘후천개벽’ 사상과 연결되는 주장이다. 민족주의적 선민의식이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이나 특정 교주 추종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지는 몰라도, 성경이나 그리스도교 전통과는 무관하다는 말이다.

주님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다(마태 28,19).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태 12,50)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가가 핵심이다. ☸



지구이야기

“ 6지구 - 유베니스의 여름 ”

안녕하세요~! 6지구 소식으로 우리 밀알 회장단 친구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희는 3월 23일 첫 모임을 진행하면서 6지구 밀알 회장단 모임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유베니스(iuvenis)', 라틴어로 청소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알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고 투표하여 선택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8월 유베니스 모임으로 수영장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도 더운 날씨였지만 즐겁게 물놀이를 마쳤고 아쉬운 마음은 불링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 은총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유베니스 친구들이 다가오는 밀알 축제도 으쌰으쌰 힘내서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개혁의 길을 걷다

클뤼니 수도원과 그레고리오 7세 교황

강한수 가톨릭 신부 | 민락동 성당 주임, 건축신학연구소

지난 회에 언급한 대로 교회는 암흑기를 견게 되었지만, 910년 부르고뉴에 클뤼니 수도원이 설립되면서 개혁의 닳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프랑크 왕국은 카페 왕조가 들어섰고, 동프랑크 왕국도 오토 대제가 신성로마제국의 부활을 알리며, 서유럽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종교적 안정과 함께 침체되었던 성당 건축도 클뤼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소개하겠습니다.

이전 세기 교회의 침체 원인 중 하나는 수도원이 국가와 교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예속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클뤼니 수도원은 수도원장을 자유롭게 선출하고 영주와 주교로부터 수도원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교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서약했고, 베네딕토 규칙서를 엄격히 준수하였으며, 수도원장에 대한 순명과 엄격한 금욕, 그리고 전례와 기도 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클뤼니는 마울로, 오딜로, 위고(후고), 베드로 존자(尊者) 등의 훌륭한 수도원장들이 40~50년씩 수도원을 이끌면서 12세기까지 약 3천 개의 공동체를 세우고, 주교와 교황을 많이 배출하였으며, 로마네스크 성당을 널리 보급시키는 등 명실상부한 서유럽의 종교적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토 대제의 신성로마제국에 있는 수도원들은 클뤼니 수도원의 중앙집권적이고 반봉건적인 개혁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토의 제국교회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그래서 그레고리오 개혁 이후에 벌어지는 교황과 황제의 성직 서임권 대결에서 황제의 편에 서게 됩니다.

클뤼니 개혁은 성직 서임권, 사제 독신, 십자군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오로지 수도원과 교회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은 결국 교회의 신앙생활을 심화시켰고, 사람들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 교황권의 위상, 교회의 폐해들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개혁운동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그레고리오 개혁'이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1077년, 위고-하인리히4세-마틸다)

클뤼니 수도원 출신의 그레고리오 7세 교황(1073~1085년 재위)은 성직 매매의 금지와 사제의 독신에 대한 규정을 반포했는데,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도 커다란 호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영주들로부터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황은 세속 군주가 가지고 있는 성직 서임권이 문제의 발단임을 인식하고, 「교황 훈령」(1075년)을 반포하여 성직 서임권이 교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성로마제국의 하인리히 4세는 교황의 결정에 반대하고 교황을 폐위하였습니다. 이에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고 황제에 대한 성직자들의 서약을 무효화 하자, 세속 권력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황제는 교황이 머물고 있는 카노사로 향하였습니다. 황제는 성문 앞에서 3일 동안 참회하였고, 그의 영세 대부인 클뤼니의 위고 원장과 성주 마틸다의 중재로 교황으로부터 사죄를 받습니다(1077년, 카노사의 굴욕). 그렇게 성직 서임권은 교황에게 돌아왔지만, 훗날 황제는 교황을 공격하였고, 교황은 도피 도중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후 교황과 황제의 화해는 보름스 정교조약(1122년)과 제1차 라테란 공의회(1123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



교구장 동정

9월	20(금)		교구청 야유회 및 월례미사 - 마재성지, 세미원 두물머리 일대
	21(토)	19시	견진성사 - 동두천 성당



교구 소식

제18차 의정부 가톨릭약혼자주말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10/18(금) 19시~20(주일) 17시
문의 가정사목부(031-850-1448)

대상 예비 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장소 위로의 성모 수녀원(성북동)
<http://cafe.naver.com/ujbee>

2019 의정부교구장배 가족오리엔티어링 대회

대상 전신자(가족, 단체, 주일학교, 기관 등)
내용 오리엔티어링 경기, 체험부스, 경품추첨 등

일시 9/22(주일) 9:30 /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문의 031-840-0742 ※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의정부교구청 통합사목국 직원 모집

인원 1명
자격 가톨릭신학 전공자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신부 추천서, 재학증명서, 마감 9/20

업무 사목 연구 및 사무 업무
접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4층 통합사목국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1부
문의 031-850-1486 통합사목국

교구청 혼인교리(가정사목부 031-850-1448)

일시 9/19(목) 19:30~22:30

장소 교구청 지하 대회의실 / 회비 2만 원(커피를 당)

청년 수지에니어그램 안내(장소: 의정부교구청)

내용 나를 마주하고 존재 그대로 이해, 수용하는 여정
일시 10/12(1차), 11/9(2차), 12/14(3차) 14시~18시
인원 각 차수별 의정부교구 청년 10명(선착순)

강사 미리내 천주성삼 수도회 수사
문의 청소년사목국 청년부 031-850-1460
비용 1인 1만 원(저녁식사 제공)

군중후원회 9월 월례미사 안내

일시 9/18 10시
대상 군중후원회 회원 및 관심 있는 모든분

장소 인창동성당(구리시 건원대로 99번길 80-11)
집전 성세현 바르톨로메오 신부(한성대/15비단)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9/23(월) 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동학
문의 031-850-1507(주말, 공휴일 휴무)

2019년 하반기 본당 사회사목분과 연수

일시 10/19(토) 10:30~16시
마감 10/11(금), 연수비 1만 원
문의 사회사목국 031-850-1472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교구 공문(사회19-241, 8/23) 참조

장소 신앙교육원
대상 본당 사회사목분과장 및 위원(빈첸시오회 포함)

■ 하나님의 집 후원 현황(8월말 기준)

전월 잔액					2,250,412,444원
8월 후원	사제와 개인	본당 입금	기타(미사예물 외)	교구 부서	합계
	7,500,000원	139,813,080원	75,661,000원	15,100,000원	238,074,080원
비고	※ 익명:10,000,000원			월말누적잔액	2,488,486,524원



미사 · 피정 ▶▶

교구 철야기도회 은사를 통한 치유피정

일시: 매주(금) 21:10~01:20 마두동 성당(9/20)
주제: 제3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사
강사: 장혜승 마리아(전국협의회 번역실장)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3·4지구 성령기도회 받기

일시: 9/18(수) 19:30~21:40
강사: 유병수 멜키울(인천교구 전 회장)
장소: 의정부1동 성당 /문의: 010-3790-0496

의정부교구 제6지구 성령 하루피정

일시: 9/23(월) 09:30~16:30
장소: 종산 성당 대성전
주제: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강사: 김대우 모세 신부(수원가톨릭대학 교수)
두현자 율리야나(의정부교구 회장)
미사: 서근수 비오 신부(6지구장)
문의: 010-7239-0428.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세미나

일시: 10/19(토) 오전11시~10/20(일) 16시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육적, 영적, 내적치유를 원하는 모든분들
(접수는 선착순이며, 사전접수자만 참석가능)
내용: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
과 안수 /회비: 5만 원
문의: 010-5490-5345

어르신들을 위한 1박2일 특별 피정

일정: 10/7(월)~8(화) 시작16시, 마침14시
장소: 정하상교육회관 /회비: 7만 원
문의: 044-863-5690~2, 010-8848-5690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효소단식피정: 9/26(목)~29(일) /28만 원
성경완독피정: 10/26(토)~11/3(일) /48만 원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예수회 젊은이피정

주제: 숨 그리고 침
내용: 침묵피정 안에 개인기도,고해와 면담
강사: 예수회 한현배 신부
날짜: 10/12(금)~13(일), 1박2일
장소: 예수회센터
참가비: 6만 원(학생5만 원)
안내: magis.jesuits.kr 02-3276-7706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피정

일시,장소: 매주(화), 파티마평화회성당
문의: 031-952-6324
10시 기도, 11시 가톨릭교회 교리강의, 고
해성사, 14시 미사(점심제공)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9/21(토) 9:50 주교좌 의정부 성당
9/21(토) 10시 후곡 성당
문의: 02-3673-2525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내용: 효소단식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 노폐
물, 체지방을 없애고 성체신심 세미나를 통
해 성체신심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
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일시: 9/20(금)~23(월), 10/3(목)~6(일),
11/8(금)~11(월) /피정지도: 토마스 신부(본원)
장소: 성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피정비: 36만 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신 글라라)

서울 삼성산 2박3일 무료 치유대피정

일시: 9/20(금) 18시~22(일) 15시
강사: 두봉 주교, 손동훈, 김현석, 조한건 신부 외
내용: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문의: 010-8362-9857

슬픔 속 희망찾기 자살유가족 프로그램

대상: 자살로 소중한 이를 잃은 분들
※1박2일 피정
일시: 9/27(금)~28(토) 14시
장소: 가회동 노틀담 교육원
참가비: 무료(20명 모집, 9/20까지 신청)
※월례 미사
일시: 매월 세번째 토요일 오전10:30(9/21)
일시: 명동 가톨릭회관1층 소성당
문의: 한마음함무자살예방센터 02-727-2496

가정회복 은혜의 낮피정(고해성사,상담)

일시: 9/16(월)13시~16:30(말씀,찬양)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회관(1,2호선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제주명현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일반: 10/17~19, 10/27~29, 11/11~13
제주전체성지순례(추차도포함): 9/21~24,
9/30~10/3, 10/6~9
접수: 02-773-1463 /064-756-6009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상처치유를 위한 두 기둥-관상
과 성찰 2 /최준열 신부
일시: 9/16(월) 13:30~16: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4)
문의: 010-5054-4470 /무료, 미사봉헌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주제: 사랑과 함께 하는 섬김의 삶
강사: 송봉모 신부 /장소: 예수회센터
일시/장소: 9/18(수) 13:30~16:30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나를 넘어 당신 안에서 /김산준
신부 /일시: 9/20(금) 10시~13시
장소: 예수회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무료, 미사봉헌

가정선교회(부부나들이 피정)

주님 사랑 안에서 듣고, 깨닫고, 쉬고, 힐링
되어가는 프로그램
일시: 10/19(토) 14시~20(일) 17시
장소: 아론의 집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
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회비: 1부부 15만 원(비신자, 냉담자도 환영)
입금: 신한 131-020-141399 천주교서울
대교구(입금 후 연락요)
찬미: 고영민 단장, 손현희
준비: 미사, 수건, 치약, 개인컵, 편한 신발
문의: 010-4204-1522 /02-777-1773

[성심교육관] 순교자성월 2박3일 무료 대피정

일시: 9/20(금) 22시~9/22(일) 15시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피정(올레, 미사, 기도, 강의)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일시: 9/27~29, 10/3~6, 10/9~11,
10/14~17, 10/22~25, 11/1~3



교육 · 모집 ▶▶

복음화학교 개강 37기(2019년 하반기)

마두동 성당 9/23(월) 20시 <오후반>
호평동 성당 9/24(화) 11시 <오전반>
마석 성당 9/25(수) 11시 <오전반>
문의: 010-5535-5791(오경은 루치아)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만 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우: 04535
문의: 02-2274-1843,4/ 홈페이지: cdcc.co.kr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술로고통받는이들을 위한 8주 재활프로그램
단주친목자조모임(AA, Al-anon)
최고의 전문성과 높은 회복률
수시상담가능 032)340-7215/6

쉬운 맥성경 모세오경 특강(총 12강)

장소: 은행동 성당(경기 시흥시 은행로218번길22) /문의: 031-404-7745, 010-5454-1871, 010-5353-5520
일시: 9/19~12/12까지 매주(목)
시간: 10시~11시 미사, 11시~13:30 강의
강사: 지혜의 샘 한영미 수산나 회장

청소년 오케스트라 피델리스 단원 모집

모집부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타악기, 금관악기 /일시: 매주(일) 13:30
장소: 피델리스 임시 연습실(일산 가좌동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곡 악보(오디션곡은 자유곡) /문의: 010-3642-3574

기도하며 기도를 배우시다(성체조배 기초교육)

일시: 9/25~11/6(수) 14시~16시
장소: 명동가톨릭회관 7층 /회비: 5만 원
강사: 조성풍, 문호영, 윤종식, 정태영, 홍성만 신부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모집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오래 함께 같이 할 간호사를 찾습니다.(기숙사 제공)
장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문의: 02-802-9311, 894-9312
홈페이지: jeonjinsang.or.kr(전.진.상.의.원)

청년 렉시오디비나(마르코복음)

일시: 9/23 시작~11월까지 총9회(월) 19시
대상: 주님 말씀을 갈망하는 2030청년
장소: 의정부 바오로딸서원 /회비: 만 원
문의: 010-2503-5185 김스페란자 수녀

예수마음 배움터 재개원 축성식. 평화음악회

일시: 9/28(토) 15~17시
내용: 축성식(이기현 주교), 평화 음악회(콘체르토 안티고 양상불의 가톨릭고음악 연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시 한빛로21) /문의: 031-946-2337~8

fiat 제9차 도보성지순례

일시: 9/21(토) 9:30~18시 /회비: 1만 원
장소: 절두산-새남터-당고개-명동
대상: 청년 미혼 남녀 /문의: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010-5247-8913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월례신앙강좌

주제: 하나님의 체험과 깨달음
(황경훈 소장-우리신학연구소장)
일시: 9/26~12/12, 매월 넷째 주(목)
12월-둘째주 목
시간: 10:30~12시, 장소: 연구소수원본부
내용: 9/26 누멘의 감정과 니르바나, 10/24 헨리나웬의 영성과 빈센트 반고흐, 11/21 토마스키팅의 영성, 12/12 사랑의 내적인 눈에 나타난 윌리엄 존스턴의 영성
수강료: 한 학기 4만 원(수도자 2만 원)
문의: 031-227-7857

인천교구 50주년 기념 영성센터 특강

10/8(화) 성경 안에서(이우진 요셉 신부)
10/9(수) 가톨릭신자의 윤리 안에서(황창희 알베르토 신부), 10/10(목) 영성과 심리 안에서(유성모 요셉 신부)
10/11(금) 생활 안에서(조명연 마테오 신부)
문의/접수: 032-933-1528(영성센터)

예수살이공동체 제자교육(34기)

일시: 10/10(목)~13(일)
장소: 상지피정의집(서울 성북구)
대상: 35세 이상 교우(참가비 17만 원)
내용: 소비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 일상에서 의미와 기쁨 찾기
문의: 02-3144-2144

제1기 임상사목교육(CPE)

CPE는 영적돌봄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입니다.
일시: 10/15~12/3, 8주간(화) 9:30~17:30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시 한빛로 21) /문의: 010-2883-5501
회비: 45만 원(중식제공) / 선착순 8명

안내 · 기타 ▶▶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10/12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 원
10/27 발칸반도 12일 365만 원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 원
11/22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69만 원
12./3 동부유럽 12일 350만 원

노인공동가정생활이용자접수(바오로성모의집)

시설명: 바오로성모의집 /대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여성분(치매판정자이용불가)
주소: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98번지 살트르성바오로수녀원 운영(설립25주년)
문의: 02-381-7510, 010-5235-1130
담당자: 권크리스티나수녀
※월요일은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가톨릭여행사 02-319-2533

10/21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11/4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12일 625만 원
11/5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15만 원
1/28 이탈리아 일주 13일 430만 원

미국가톨릭사립학교 정규입학 모집

대상: 초5~고2 /기간: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oakinternational.co.kr
문의: 02-2258-8983(월~금)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운영 미국 학교법인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10/4, 11/4, 11/12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289만 원
10/7, 11/7 이태리 일주 9일 279만 원
10/7 산티아고 13일 395만 원
10/14, 11/15 다낭 성모발현지 5일 129만 원

제 55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초·중·고: 1/5~2/9(3, 5주 선택)
가톨릭계 초·중·고 학교에서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
대·일반: 1/5~2/16(6주 or 장기 선택)
DCU 대학교 or ULearn 학원
세계 각국 연수생들과 함께
설명회: 9/29(일) 14시 명동성당내 가톨릭회관 2층 강당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한국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0/8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4일 390만 원
10/22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터키, 그리스) 12일
12/12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30만 원
1/9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38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9/21(토) 14시	개화동 수도원(서울)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010-8715-2846
	가르멜수도회	매월	지역별 장소	010-9986-5680
	성 빈센트 드 볼 자비의 수녀회	9/22(주일) 14시	본원(빈센트병원 뒤)	010-8833-8107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루카 1,28)

왕태언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가톨릭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입니까?”

가톨릭교회의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성당 입구나 마당의 잘 보이는 곳에 모셔진 성모상을 보며 가톨릭을 ‘성모님을 믿는’ 종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개신교의 일부 종파에서 성모님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교리를 문제 삼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가톨릭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오히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모님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교리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매우 분명한 것은 성모님께 대한 ‘공경(恭敬/Veneratio)’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흠숭(欽崇/Adoratio)’을 결코 넘어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교회에서 특별한 공경으로 당연히 존경을 받으십니다. (...) 공경은 교회 안에 언제나 있었던 그대로 온전히 독특한 것이지만, 강생하신 말씀과 똑같이 성부와 성령께 보여 드리는 흠숭은 공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또한 그 흠숭을 최대한 도와줍니다.”(가톨릭 교회교리서 971항)

그래서 가톨릭교회의 신자들은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성모님의 평생 동정(童貞)’, ‘하느님의 어머니(Theotokos)이신 마리아’, ‘성모님의 승천’과 같은 교리들을 전례 안에서 기념하고 묵상함으로써 성모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이며 순종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노력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올바른 신앙의 모범(模範)이신 성모님 덕분에 우리 또한 어떤 자세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는 말로 표현된 하느님께 대한 ‘순종’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신비를 분명히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업적이나 위대함을 통해 하느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그리고 성실하게 따를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리고 극도의 시련, 곧 그 아드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마리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리아를 가장 순수한 신앙을 실현하신 분으로 공경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9항)

이처럼, 성모님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교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구원의 신비를 이해하고, 참된 믿음을 지닌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신비에 참여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교리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